17일 오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한국축구대표팀 회복훈련에서 선수들이 가벼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가자 남아공으로! 허정무號 26명 발표

해외파 12명·이승렬 등 '젊은 피' 3인방 재승선

조원희 등 4명 탈락…내달 1일 최종 23명 발표

'라이언킹' 이동국(전북)과 '올드 보이' 안정환(다롄 스더), '왼발 달인' 염기훈(수원)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출전 기대를 부풀린 반면 국내파 조원희와 강민수(이상 수원), 김치우(서울), 황재원(포항) 등 네 명은 월드컵 참가 희망을 접었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7일 오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코칭스태프 회의를 열고 남아공 최종 엔트리 23명을 고려한 2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예비 명단 30명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국내파 중심으로 대표팀을 불러모아 자체 훈련을 지휘했던 허정무 감독은 지난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나서 최종 엔트리 윤곽을 그렸다.

예상대로 대표팀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박주영(AS모나코)·기성용(셀틱)·차두리(프라이부르크)·일본 J-리그의 이근호(이와타) 등 해외파 12명은 허정무 감독의 재신임을 받았다.

박지성과 이청용·박주영·기성용·이근호 외에 해외파는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러시아에서 뛰는 김남일(톰 톰스크)·중국 슈퍼리그에서 맹활약한 안정환(다롄 스더)·J-리그 수비수 이정수(교토)·곽태휘(가시마)·김보경(오이타)도 낙점을 받았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8강 진출에 앞장섰던 공격수 이승렬(서울)과 김보경·구자철(제주) 등 3총사와 에콰도르와 경기 때 투혼을 보여줬던 김재성·신형민(이상 포항)도 허정무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또 37세의 '백전노장' 골키퍼 이운재(수원)가 대표팀의 주전 수문장 임무를 맡고 정성룡(성남)과 김영광(울산)은 뒤를 받친다.

수비수로는 붙박이 중앙수비수 조용형(제주)·김형일(포항)과 좌우 풀백 김동진·오범석(이상 울산)·김정우(광주 상무)도 발탁됐다.

그러나 미드필더 조원희·김치우와 중앙수비수 강민수·황재원은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최종 엔트리 23명은 6월1일 발표한다.

◇남아공 월드컵 예비 엔트리(26명)

▲GK= 이운재(수원)·정성룡(성남)·김영광(울산) ▲DF= 이영표(알 힐랄)·김동진·오범석(이상 울산)·차두리(프라이부르크)·조용형(제주)·이정수(가시마)·곽태휘(교토)·김형일(포항) ▲MF= 박지성(맨유)·김보경(오이타)·이청용(볼턴)·김재성(포항)·기성용(셀틱)·김정우(광주 상무)·김남일(톰 톰스크)·신형민(포항)·구자철(제주)·

▲FW= 박주영(AS모나코)·이근호(이와타)·이동국(전북)·안정환(다롄 스더)·염기훈(수원)·이승렬(서울)

부상 등 변수…공격진 경쟁 혼선

이동국·박주영 재활 과제로…이근호도 올시즌 부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준비에 한창인 축구대표팀 공격진의 경쟁이 혼전 상황이다.

지난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동국(전북)이 허벅지 뒷근육 통증으로 회복에 2~3주가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 게다가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대표팀 막내 이승렬(서울)은 에콰도르와 경기에서 이동국과 교체 투입되고 나서 7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뽑으며 2-0 승리를 안기는 등 월드컵 본선 참가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17일 예비 엔트리 30명을 26명으로 압축하면서 이동국과 이승렬 모두 엔트리에 포함했다. 하지만 6월2일 오전 7시(한국시각)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해야 할 23명의 최종 엔트리 경쟁이 남아 있다.

허정무호 출범 이후 대표팀 주전 투톱은 박주영(AS모나코)과 이근호였다.

프랑스 리그에서 맹활약한 박주영은 현재 부상으로 재활 중이지만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표팀 공격을 책임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근호가 올 시즌 부진하면서 남은 한 자리 싸움이 치열해졌다.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이근호는 17일 낮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해 J-리그 24경기를 뛰면서 12골을 터트렸던 이근호는 올해 12경기에서 1골에 그쳐 부진한 모습이다. 대표팀 경쟁자들에게 추격을 허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행히 전날 열린 J-리그 12라운드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어시스트 2개를 배달해 3-1 승리에 힘을 보태 조금이나마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허 감독이 26명의 명단을 확정하기 전 입국한 이근호는 "아직 최종엔트리가 발표 나지 않았다.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가하게 되면 팀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바르샤 2연패…34골 메시 득점왕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정규리그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두 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또 한국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인 아르헨티나의 간판공격수 메시는 시즌 최종전에서도 2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올시즌 34골로 프리메라리가는 물론 유럽 리그 통합 득점왕에 올라 기쁨은 두 배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17일 오전(한국시각) 홈 구장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누 캄프 경기장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메라리가 38라운드 최종전에서 레알 바야돌리드를 4-0으로 완파했다.

31승6무1패(승점 99)로 시즌을 끝낸 바르셀로나는 맞수 레알 마드리드의 추격을 뿌리치고 지난 시즌에 이어 리그 정상을 밟았다. 통산 20번째 리그 우승이며, 승점 99는 프리메라리가 한 시즌 최다 승점(종전 1996~1997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92점)이다. /연합뉴스

인테르 밀란 세리에A 5연패 달성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구단 인테르 밀란이 1부 리그 세리에A에서 5연패를 달성했다.

인테르 밀란은 17일(이하 한국시각) 이탈리아 아르테미오 프란키 아레나에서 열린 2009~2010 세리에A 정규리그 마지막 38차전에서 디에고 밀리토가 후반 13분 결승골을 터뜨려 시에나를 1-0으로 꺾었다. 인테르는 이로써 승점 82(24승10무4패)를 기록해 AS로마(24승8무6패·승점 80)를 승점 2차로 따돌리고 올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인테르는 5시즌 연속으로 세리에A 정상에 등극했고, 이탈리아 컵대회 우승에 이어 올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친절한 번개' 볼트씨 자메이카의 '총알 탄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17일 대구 동성로의 푸마매장 앞에서 시민들의 사인공세 속에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축구대표팀에 전용버스

현대자동차는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전용버스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날 한국-에콰도르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 양승석 현대차 글로벌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버스 전달 행사를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남아공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전용버스를 전달했다"며 "버스는 선수들이 출국하기 전까지 전 일정에 투입돼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술탄 국제하키' 공동우승

한국이 제19회 술탄 아즐란샤 국제하키대회에서 인도와 공동 우승했다.

한국은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이포에서 열린 인도와 대회 결승전이 비로 중단되면서 대회 규정에 따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는 한국과 인도를 포함해, 호주, 파키스탄, 중국 등 7개국이 참가했다.

한국은 국가대표팀을 대신해 성남시청팀이 참가했으며 예선 성적 3승2무1패로 1·2위전에 진출했다.

9골을 넣은 남현우가 득점상을 받았고 기자단이 뽑은 베스트11에는 이남용·홍은성·유효식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학경력자포함,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체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 원 장 이 명 규 교 수 062-670-2421
• 부원장 강 동 욱 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 병 철 062-233-3119

폴라리스 복합상가 분양/임대

봉선동 2만여세대 완전 중심 상권 / 최고의 투자가치

모두가 꿈꾸는 탁월한 선택,당신의선택이 당신의미래를 만듭니다.

봉선동 중심상권!! 최고의 입지!!

봉선동 폴라리스 복합상가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의 미래가치가 보이는 성공사업을 약속합니다.

편리하고 넓은 주차공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하 60대, 지상 12대

1F 프리미엄 상권으로 최고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은행/대형음식점/패스트푸드/약국
귀금속/동물병원/핸드폰대리점/키피전문점 등

2F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병의원/한의원/치과/미용, 피부관리/커피전문점/당구장

3F 밀집된 학군으로 최적의 조건형성
권/장/업/종 입시전문학원/독서실/보습학원/외국어학원/체육관/기타학원

4F 대단위 유동 인구와 소비여력의 최적화 상권
권/장/업/종 스포츠센타/패밀리레스토랑/스크린골프/헉원/기타

"프리미엄 상권의 최고중심" 폴라리스 분/양/임/대/문/의 062)674-4900